

## 성 조 와 의 미

김 차 군

## 1. 서 론

경상도 방언에서 음조(Pitch)의 상대적인 고저가 낱말의 어휘적인 의미를 분화시키며 따라서 이러한 음조는 성조(Tonemes)라는 것과 경상도 방언의 낱말 또는 그 낱말을 구성하는 형태소에 대한 성조에 대해서는 수십편의 논문이 나와 있을 정도로 여러 학자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그러므로 낱말의 성조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논의하지 않겠다.

얼 속에서 낱말이나 어절들의 나타남이나 어순이 같으면서도 정보 초점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또는 문맥이나 기타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성조가 달리 나타난다는 데 대해서도 필자는 이미 세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김 차군 1977, 1978, 1979).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다시 얼 속에서의 성조에 관해서 글을 쓰게 되는 것은 최근에 의미론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따라 전제(Presupposition), 정보 초점(Information focus), 양화사(Quantifier)의 작용 영역 따위가 얼 속에서의 운율적인 자질들(강세, 억양,

음절의 길이, 경상도 방언에서는 성조)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는 데 대한 인식이 두려워졌으며, 그런 데도 음운론이나 음성학 특히 국어의 음운적인 자질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난 날의 음운론적 연구 성과를 전혀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고, 의미 연구를 하는 자리에서 강세나 워센트니 또는 성조니 하고들 있기 때문이다. 의미 연구가 그들의 본 연구 분야이긴 하지만 강세나 성조 등의 음운론적인 이야기를 인용하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초는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들을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은 요즈음 필자가 새로 발견한 몇 가지 의미와 관련된 성조 현상을 정리하는 것에 있다.

서론에 이어 2 장에서는 경상도 방언(경남 창원 방언을 가리킴)의 성조 및 성조형의 종류와 그 표시법을 소개하고, 성조형과 음조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규칙을 제시한다. 음조형은 밖으로 발음된 형태로 성조형과 음조형의 관계는 /koki/(고기): [kogi] (고기)의 관계와 같다. 3 장에서는 성조에 의한 낱말과 구의 차이를 보이며, 4 장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5 장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정보 축점, 의문문, 전제 등에 대해서는 앞

에서 말한 필자의 논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 2. 성조형의 표시법과 성조 규칙

경상도 방언에서는 성조와 성조형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성조형만으로 성조를 논하기에 충분하다. L은 상성(/저/), M은 거성(/중/), H는 평성(/고/)를 나타낸다. L, M 또는 H의 오른쪽 여백이나 발에 1, 2, 3, 4, ..... 또는 m, n 따위의 숫자를 붙이기도 하는데, 이들은 형태소나 어절 또는 열이 가지는 음절의 수를 나타낸다. 성조 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붙인 숫자는 " ~ 음절" 이상을 뜻하며, 위에 붙인 숫자는 " ~ 음절" 을 뜻한다. 예를 들어  $L_1$ 은 L이 1 음절 이상이므로 L, LL, LLL, LLLL ..... 따위를 나타내며,  $L_2$ 는 L이 2 음절 이상이므로 L은 제외되고 LL, LLL, LLLL ..... 따위를 포함한다. 같은 방법으로  $M_4$ 는 1 음절, 2음절, 3음절은 제외되므로 MMMM, MMMMM, MMMMMM, ..... 등을 포함한다.  $L^3$ 은 LLL을,  $M^2$ 는 MM을,  $H^4$ 는 HHHH를 간단히 표시한 것이다. 이하에  $MH^2M^3$ 은 MHHMM을,  $MH^3M^2$ 은 MHHMM을 간단하게 표시한 것이며,  $H^m$ 과  $M^n$ 는 H가 m개 M이 n개 연결됨을 각각 나타낸다.

경상도 방언의 성조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



의 보기를 들어 둔다:

(3) 어 절	성조형	음조형
ㄱ 개	L	L
말(언어)	L	L
사람	L <sup>2</sup>	LM
연상이	L <sup>3</sup>	LM <sup>2</sup>
고맙습니다	L <sup>5</sup>	LM <sup>4</sup>
ㄴ 소	M	M
말(곡식을 띄는)	M	M
참새	M <sup>2</sup>	HH(/MM)
법학자	M <sup>3</sup>	HHM
법학박사	M <sup>4</sup>	HHM <sup>2</sup>
ㄷ 집	H	H
말(동물)	H	H
그	H	H
그 집	H <sup>2</sup>	MH
보리	H <sup>2</sup>	MH
보리밭	H <sup>3</sup>	MH <sup>2</sup>
보리밥	H <sup>2</sup> M	MHM
고등해구	H <sup>2</sup> M <sup>2</sup>	MHM <sup>2</sup>
아주까리	H <sup>3</sup> M	MH <sup>2</sup> M

1 음절어는 따로 떨어져서 (즉 # \_\_\_\_\_ # 의

환경에서) 발음되면 2 음절로 길어져서 발음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열 속에서는 반드시 2 음절로 발음된다. 예를 들면, #개#, #소#, #말# 따위는 #개애#, #소오#, #마알# 따위로 길어지며 이들의 성조도 각각 L은 L<sup>2</sup>로, M은 M<sup>2</sup>로, H는 H<sup>2</sup>로 길어지고, 다시 규칙 (2)의 적용을 받아 LM, HH, MH로 발음된다. 예문을 하나만 든다.

(4) 개, 소, 말, 모두 다 팔았다.

# L # M # H # HM # L # M <sup>3</sup>	성조형 어침
# L <sup>2</sup> # M <sup>2</sup> # H <sup>2</sup> # _____ # L <sup>2</sup> # _____ #	
# LM # HH # MH # _____ # LM # HHM #	규칙(2) 음조형
# LM # HH # MH # HM # LM # HHM #	

### 3. 낱말과 구

두 개의 구성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낱말(복합어 또는 합성어)이 되는지, 또는 결합이 굳어지지 않아서 구로 되는지는 반드시 성조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조에 의해서 구별되는 보기들도 많이 있다. 이런 보기들은 필자(김 차근 1980)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라고 여기에서는 두 개의 구성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비동작-과정 동사(즉 비동작성의 자동사) 또는 상태 동사(즉 형용사)가 되느냐

또는 "동작 동사 + 조동사"가 되는냐에 따라 성조가 달라지는 보기만 몇 개 들어 놓기로 한다.

## (5) 날 말 구

꺼지다	$M^3   HHM  $	꺼지다	$H^2M   MHM  $
까지다	$M^3   HHM  $	까지다	$H^2M   MHM  $
펼치다	$M^3   HHM  $	펼치다	$H^2M   MHM  $
타지다	$M^3   HHM  $	타지다	$H^3M   MHM  $

위의 동사들은 기본형뿐만 아니라 다른 굴곡형에 서도 차이가 있다. 날말의 경우는 모든 굴곡형의 성조가 거성형 ( $M_1$ )으로 나타나지만 구의 경우는 "아/어, 앓/앓, 아도/어도, 아라/어라"가 뒤따를 때는 상성형 ( $L_1$ )으로 발음되지만 그 밖의 경우는 평측형 ( $H_1M^n$ )으로 발음된다. (5)에 나온 보기들은 모두 성조형이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기는 "꺼지다"와 "꺼지다"만 든다.

## (6) 날 말 구

꺼지다	$M^3   HHM  $	꺼지다	$H^2M   MHM  $
꺼지고	$M^3   HHM  $	꺼지고	$H^2M   MHM  $
꺼지더라	$M^4   HHM^2  $	꺼지더라	$H^3M   MH^2M  $
꺼지곶다	$M^4   HHM^2  $	꺼지곶다	$H^3M   MH^2M  $
꺼질수록	$M^4   HHM^2  $	꺼질수록	$H^2M^2   MHM^2  $

꺼져서 M <sup>3</sup>  HHM	꺼져서 L <sup>3</sup>  LM <sup>2</sup>
꺼졌다 M <sup>3</sup>  HHM	꺼졌다 L <sup>3</sup>  LM <sup>2</sup>
꺼져도 M <sup>3</sup>  HHM	꺼져도 L <sup>3</sup>  LM <sup>2</sup>
꺼졌겠더라 M <sup>5</sup>  HHM <sup>3</sup>	꺼졌겠더라 L <sup>5</sup>  LM <sup>4</sup>

방언에서 조동사 또는 파생 접사 "지 + 아/어 (또는 앓/엿 아도/어도 아서/어서)" 따위는 모두 /지, 졌, 지도, 지서/로 발음되지만 (6)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준말의 정서법을 그대로 적어 놓았다. 이제 (5)의 낱말 또는 구가 들어 있는 예문을 몇 개만 들어 보자.

(7) 낱말의 경우

ㄱ. 불이 저절로 꺼졌다.

# M <sup>2</sup>	# H <sup>2</sup> M	# M <sup>3</sup>	#	(성조형)
MM	# MHM	# HHM		(음조형)

ㄴ. 그 자식 성질이 홀랑 까졌다.

# HM <sup>2</sup>	# L <sup>3</sup>	# L <sup>2</sup>	# M <sup>3</sup>	#
HM <sup>2</sup>	# LM <sup>2</sup>	# LM	# HHM	#

ㄷ. 바지 가랑이가 타졌다.

# HM	# L <sup>4</sup>	# M <sup>3</sup>	#
HM	# LM <sup>3</sup>	# HHM	#



ㄹ. 밥이 잘 퍼진다.

$$\begin{array}{l} \# M^2 \quad \# L \quad \# M^3 \quad \# \\ | HH \quad \# LM \quad \# HHM \quad \# \end{array}$$

(8) 구 의 경 우

ㄱ. 나는 불이 잘 꺼진다. (꺼=동작동사)

$$\begin{array}{l} \# HM \quad \# M^2 \quad \# L \quad \# H^2M \quad \# \\ | HM \quad \# HH \quad \# LM \quad \# MH^2M \quad | \end{array}$$

ㄴ. 이 계란은 잘 까진다. (내가 까니까)

$$\begin{array}{l} \# M \quad \# HM^2 \quad \# L \quad \# L^3 \quad \# \\ | HH \quad \# HM^2 \quad \# LM \quad \# LM \quad \# \end{array}$$

ㄷ. 흥부에게 박이 잘 타지더라.

$$\begin{array}{l} \# HM^3 \quad \# M^2 \quad \# L \quad \# H^3M \quad \# \\ | HM \quad \# HH \quad \# LM \quad \# MH^2M \quad | \end{array}$$

ㄹ. 이 주걱으로 밥이 잘 퍼진다.

$$\begin{array}{l} \# M \quad \# H^2M^2 \quad \# M^2 \quad \# L \quad \# H^2M \quad \# \\ | HH \quad \# MHM^2 \quad \# HH \quad \# LM \quad \# MHM \quad | \end{array}$$

위의 예문에서 "계란, 박, 주걱"은 경상도 사투리로는 각각 달걀알  $H^2M$ , 참박  $HM$ , 주기  $H^2$ 로 나타난다.

4 새로운 정보와 창조

회상 시제 형태소 "더"는 말할이(의분문에서는 들을이, 인용절에서는 그 절을 직접 인용하는 사람)가 과거 어느 때에 기준을 두고 그 때에 새로(문득) 알게 된 것을 회상하여 말할 때에 쓰인다(김창균 1980).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없을 때는 "더"는 쓰이지 않는다.

- (9) 가. 내가 정신없이 달리다가 보니  
 나는 학교 앞을 지나 가더라.  
 나. 나는 배가 고프더라.  
 다. 나는 꿈에도 그 집을 찾더라.  
 라. 나는 밥이 먹고 싶더라.  
 마. 내가 정신을 차려 보니 병실에 있더라.

(10) 가. \*나는 학교 앞을 지나 가더라.

# HM # M<sup>4</sup> # L<sup>5</sup> #  
 | HM # MHM<sup>2</sup> # LM<sup>4</sup> |

나. \*나는 그 집을 찾더라

# HM # H<sup>2</sup>M # M<sup>3</sup> #  
 | HM # MHM # HHM |

다. \*나는 병실에 있더라.

# HM # L<sup>3</sup> # H<sup>2</sup>M #  
 | HM # LM<sup>2</sup> # MHM |

위에서 예문 (9 가-마)은 모두 말할이가 새로(문

득) 알게 된 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예문이지만 (10 ㄱ-ㄷ)에는 그것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비문법적인 예문들이다. (9 ㄱ)에서는 "학교 앞을"이, (9 ㄴ)에서는 배가 고프지 않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는 내용이, (9 ㄷ)에서는 "꿈에도"가, (9 ㄹ)에서는 밥이 문득 먹고 싶어졌다는 내용이, (9 ㅁ)에서는 "병실에"가 각각 새로운 정보이다.

이에 대하여 (10 ㄱ)은 내가 학교 앞을 지나가는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10 ㄴ)은 내가 그 집을 찾는 줄 모르고 찾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10 ㄷ)도 내가 병실에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0 ㄱ-ㄷ)의 얼들도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걷다가 보니) 학교 앞을 지나 가더라.", "나는 (무엇을 찾는 지 찾아 다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을 찾더라.", "나는 (어두워서 어디 있는지를 분간할 수 없다가 달이 뜰 때 살펴보니) 병실에 있더라"와 같은 얼들에서 괄호 속의 문맥을 생략하고 말을 했을 때는 문법적인 얼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얼 속에 반드시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에 해당되는 어절(들)은 강세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표면적인 음조형이 (10)의 경우와는 달라진다. 예문 (11)에서 새로운 정보는 두꺼운 글자로 표시했으며 이 어절(들)은 강세를 받는다.

경상도 방언에서 강세는 영어의 Stress 와는 다르고 어절 전체가 다른 어절에 비하여 더 크고 뚜렷하게 발음될 뿐이다.

(11) 가. 나는 학교 앞을 지나 가더라.

# H M	# M <sup>4</sup>	# L <sup>5</sup>	#	성조형
# H M	# M <sup>9</sup>	#	#	성조형결합
H M	# H H M <sup>7</sup>			규 칙(2)

나. 나는 그 집을 찾더라.

# H M	# H <sup>2</sup> M	# M <sup>3</sup>	#	성조형
# H M	# H <sup>2</sup> M <sup>5</sup>		#	성조형결합
H M	# M H M <sup>5</sup>			규 칙(2)

다. 나는 병실에 있더라.

# H M	# L <sup>3</sup>	# H <sup>2</sup> M	#	성조형
# H M	# L <sup>6</sup>		#	성조형결합
H M	# L M <sup>5</sup>			규 칙(2)

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하지 아니한 성조형 결합 규칙이란 것을 보았다. 이것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12) 강세 규칙 : 새로운 정보가 없이는 어절에 강세가 놓인다.
- (13) 강세가 있는 어절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뒤에 오는 모든 강세 없는 어절은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의 성조형으로 결합된다.

성조형의 결합 방법은 다음의 규칙에 의한다.

- (14) 가. 상성형 + 다른 성조형 → 상성형  
 나. 거성형 + 다른 성조형 → 거성형  
 다. 명성형 + 축성형 → 명축형  
 (단, 축성형은 상성형과 거성형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일컫는 용어이다.)  
 라. 명축형 + 다른 성조형 → 명축형

위의 (14)를 기호로 더 엄격하게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15) \begin{bmatrix} L_1 \\ M_1 \\ H_1 \\ H^m M_1 \end{bmatrix} + \begin{bmatrix} L^n \\ M^n \\ H_1 M^n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L_1 \\ M_1 \\ H_1 M^n \\ H^m M_1 \end{bmatrix}$$

여기에서  $\begin{bmatrix} A \\ B \end{bmatrix}$   $\begin{bmatrix} C \\ D \end{bmatrix}$  와 같은 표기법은 AC 또는 BC를 뜻하며  $\begin{bmatrix} A \\ B \end{bmatrix}$   $\begin{bmatrix} E \\ F \end{bmatrix}$  와 같은 표기법은 AE, BE, AF, 또는 BF를 뜻한다.

## 5. 결 론

경상도 방언에서 성조는 낱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전제, 정보 축점, 양화사의 작용 영역, 새로운 정보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용되기도

하고 낱말과 구의 구별 즉 문법적 범주를 표시하는 데도 이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정보의 표시 방법과 낱말과 구의 구별에 쓰이는 성조의 기능을 몇 가지 기술했다. 그리고 성조형에서 음조형을 도출하는 규칙을 제시했다.

## 참 고 문 헌

- 김 차균. "경상도 방언의 성조 규칙". 논문집 제 IV 권 제 1 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77.
- \_\_\_\_\_. "얼 속에서의 성조의 기능". 언어학 제3호. 한국언어학회, 1978.
- \_\_\_\_\_.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과학사, 1980.
- 서 정목. "경상도 방언의 의문법에 대하여". 언어지 4 권 제 2 호. 1979.

< 충남대학교 교수 >